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매개효과

Effects of Cyber Universities' Career Maturity on Academic Stress : Mediator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김현아*, 이자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Hyun-Ah Kim(haha6082@hanmail.net)*, Jayoung Lee(hycounselor@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대학생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8.0을 통해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학업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는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 중심어 : | 진로성숙도 | 학업스트레스 |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 사이버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between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stress. To examine it, a total of 582 cyber universitie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refore,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it was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mediated between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stres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strategies for reducing academic stress for cyber student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also discussed.

■ keyword : | Career maturity | Academic Stress |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 Cyber Universities |

I. 서론

2013년 12월 현재 사이버대학 졸업생은 139,789명, 재학생 현황은 정원 내 107,059명, 정원 외 20,052명[1]에 달한다. 사이버대학생의 주요특징은 평균연령이 전통적인 대학 학습자보다 높고,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하며 학습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8]. 사이버대학생은 주로 사이버 학습 환경에 대한 학업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는 학습몰입[43], 학습지속의향[43]이나 중도탈락[2]에 영향을 끼친다. 일반대학생의 학습과는 달리 혼자 시간 관리를 하면서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는

접수일자 : 2014년 09월 30일

수정일자 : 2014년 10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04일

교신저자 : 이자영, e-mail : hycounselor@hanmail.net

더욱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이버대학생 관련 연구들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이버 학습 환경[3], 자기조절능력[4]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성인학습자들의 학업문제를 학업성취나 중도탈락과 같은 성과변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내적 변인으로서 학업의 정의적 영역인 학업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사이버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라도 문제해결방식[8]과 같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대학생들은 33.92%가 주부 포함 무직이며, 나머지는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다[1]. 해외의 원격대학 학생들 또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목적으로 진학하고 있다[9]. 사이버대학생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모색하기 위한 진학한 경우가 많음을 시사해준다. 이에 학생의 역할과 동시에 대부분 직장생활 혹은 주부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 진로발달의 맥락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Super[17]는 개인의 일상 동안 진로발달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5단계로 나누고 진로를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진로발달에는 직업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세계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역할들을 포괄한다. 개인은 직업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장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직업적 책임감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이때 재탐색, 재확립의 과정이 확립기-유지기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진로탐색기를 마치고 확립기에 접어든 시기에도 전환과정에서 재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18]. 사이버대학생의 경우, Super의 진로발달시기[17]로 보면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진로발달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재 탐색되어질 수 있다. 이는 진로탐색이 공고화되어진 성인기에 학습자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진로성숙도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5][6], 성인기에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부생이나 전통적인 대학원생들에 비해 높은 진로성숙수준을 보이고 있다[7]. 하지만 선행연구 결과들은 이들의 진로성숙도 수준만 비교할 뿐이지 이들의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가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위주[5][6][10][11]로 진행되어 왔고, 성인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사이버대학의 관심이 중도탈락[12][13], 학업성취[2][4], 학습효과[14]와 같은 교육의 양적 평가에 치중함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대학생 시기에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한 조망을 길러 줄 수 있는 시기[44]임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의 진로탐색 변인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석된다.

한편, 진로성숙도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며[10][15],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의 학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나이, 학력, 직업 등이 다양함으로 고려할 때 다른 변인을 배제한 채 진로성숙도 변인으로만 학업스트레스를 검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기에 이르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 간의 갈등이 진로문제를 유발하는데 사이버대학생의 경우 학생으로서의 새로운 역할도 중요하게 지각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준비상태가 학업스트레스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성인기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는 높은 경향이 있지만[16], 원격교육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자기주도 학습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45],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 학습준비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대학생의 학습활동을 진로탐색 이행과정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이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과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의 매개정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문제 2.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관계에서 자기주도 학습준비가 매개하는가?

II. 문헌고찰

1. 성인기의 진로성숙도

Super[19]에 의하면,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란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를 뜻한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의 정도나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진로발달의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의 준비부터 은퇴까지의 발달과업에 대처해 나가는 태도적, 인지적 준비도라고 정의했다. Crites[20]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으로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의사결정과 관련된 능력을 가지며 자기의 일과 일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진로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21]. Super[19]에 비해 Crites[20]는 진로성숙도를 진로선택과정의 정의적 특성, 연령에 따른 상대적 위치와 같은 진로발달의 비율을 포함시킴으로써 진로성숙도의 개념을 정교화 시키고 있다.

성인기의 진로성숙도를 청소년기와는 달리 구분하기도 한다. Super와 Knasel[22]는 성인기 진로발달은 청소년기의 진로성숙과 달리 진로적응이라는 개념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일의 세계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진로성숙도를 청소년기에 국한하지 않고 연속적인 발달 개념으로 보는 연구[19][23]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선행연구결과는 진로발달이론에서 말하는 진로성숙도가 진로탐색기에서 쇠퇴기까지의 진로발달 수준이고 전생애에 걸쳐 진로발달 단계가 순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의 진로탐색과정을 직업 부적응 담론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진로탐색기 이후의 유지기나 쇠퇴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성숙도 연구가 부족하고 진로발달이나 진로성숙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5][10][15]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부 대학생[24-26]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들 또한 청소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유귀옥[16]에 따르면 성인은 다양한 발달과업 수행과 인생주기의 전이적 단계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하고자 한다. 진로성숙도와 같은 진로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볼 때,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다중역할을 병행하며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학 학부생들과 학부를 졸업하고 곧장 대학원에 진학한 전통적인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후 대학에 다시 돌아온 성인학습자 간에는 같은 교육과정에 진학하더라도 진학 이유에 있어 진로성숙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학습자는 학부생이나 전통적인 대학원생들에 비해 높은 진로성숙 수준을 보이고 있다[7].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 유형이 자기 실현형, 전문성 향상형, 대학생활 만족형으로 분류되었다. 자기 실현형은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 유형이며, 전문성 향상형은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유형이고 대학생활 만족형은 대학생활 자체를 즐기면서 대학생활을 누리는 유형으로 드러났다[2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성인기에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적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2.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진로성숙도와 학업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대

학생의 학업에 대한 몰입 경험도가 진로태도성숙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고[28], 이와는 상반되게 진로성숙도 변인이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29]는 연구도 있다. 이를 통해 학업과 진로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서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인과관계가 또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학년, 학업성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환경스트레스는 성, 전공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9].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무용학과[29], 치위생학과[28]와 같이 특수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인기의 다양한 전공 및 직업에 종사하는 사이버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성숙도 변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외의 원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단연구결과에서도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들이 직업적 전문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한 도구로서 원격교육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46]. 사이버대학생들은 청소년기의 진로탐색기를 포함해서 진로유지기, 쇠퇴기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들의 진로성숙도 변인이 사이버대학생활의 학업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으로 학과만족도[24][26], 진로스트레스[26] 등이 있다. 진로성숙도가 낮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가 진로스트레스와 부적상관 관계임을 의미한다[24][26]. 한편 학과만족도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 중 결정성, 성향, 타협성은 학과만족도와 진로스트레스의 부적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참여도와 독립성은 의의 있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26].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낮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인 사이버대학생들은 학업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과정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진로적응이나 제2의 직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스트레스보다는 학업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겪고 있겠다.

다. 평생학습자와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30]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준비와 진로태도 성숙 수준을 파악해보기도 하였는데 이는 성인기의 진로성숙도는 개인내적 변인으로서 자기주도 학습준비 뿐 아니라 교육 환경적 요인으로서 교육과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만이 학업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변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자기주도 학습 관련 변인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3.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와 학업스트레스

성인들은 아동 및 청소년기 학생과는 다른 독특한 학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기주도성이다. 유귀옥[16]에 의하면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환경적 요인과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며, 독립적인 자아개념과 개별적 학습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학습과제와 학습형태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가 있다.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도구로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준비상태나 정도를 의미한다[31](재인용).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는 사이버대학생과 같은 평생학습자의 학습 성과[34] 일반대학생의 이러닝 수업에서의 전공지식 및 자신감과 교육만족도[4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이버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수준의 관련 변인을 살펴본 결과, 이러닝 참여 정도와 학교적응행동의 변화량이 높고, 자기결정성이 높으며, 학업 소진이 적을수록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에 대한 행동변화가 학업소진과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학교적응에도 상관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는 개인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유의미한 변인은 최종학력과 직업이었으며, 산업체 근무기간, 학년, 대학원 진학계획, 학점, 인터넷을 통한 학습프로그램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32]. 이와는 상반되게, 이러닝 수업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사이버학습 환경요인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학 이러닝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인터넷 수업기능의 활용, 학습 성공에 대한 이해 정도가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있었다[33]. 이를 통해 대학 이러닝 수업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적인 인터넷활용 기능, 최종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학습에 대한 이해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가 학습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로성숙도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 학습자 스스로 학습 전체를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특성과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탐색, 선택, 준비할 수 있어 진로성숙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업스트레스뿐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간에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S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582명으로 남학생 134명, 여학생 448명으로 여학생 비중이 높은 데, 이는 여학생이 더 많은 학과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39명(6.7%), 2학년이 136명(23.3%), 3학년이 370명(63.6%) 그리고 4학년이 37명(6.4%)으로 2학년과 3학년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

는 36.7세(SD= 8.75)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간에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35]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였다. 첫째,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이 준거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직접적인 영향이 감소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8.0을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3.1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23]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형진로성숙도 검사 중 한국청소년패널 5차 년도에 포함된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가 있다.” 척도는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64로 나타났다.

3.2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 Guglielmino[36]의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검사(SDLRS)를 기초로 해서 유귀옥[16]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발한 것을 전하영[3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그리고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은 32문항이며,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모르는 내용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내는 일을 즐긴다”, “나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된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 계수는 .837로 나타났다.

3.3 학업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희[38]가 개발하고 김재엽 등[39]이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교수업에 대한 스트레스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수는 총 10문항이며,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학교 수업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10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59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진로성숙도,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학업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진로성숙도,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그리고 학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진로성숙도는 자기 주도 학습준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29, p<.01$),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1, p<.01$). 자기주도 학습 준비와 학업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29, p<.01$).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진로성숙도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하위요인 중 학습에 대한 호기심($r=.02, n.s$)을 제외하고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과는 모두 부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r=-.36, p<.01$; $r=-.37, p<.01$). 또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하위요인 중 학습에 대한 애착과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제외하고는 학교성적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학교수업 스트레스와도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제외하고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2-1	2-2	2-3	2-4	2-5	2-6	3	3-1	3-2
1	-										
2	.29**	-									
2-1	.15**	.82**	-								
2-2	.28**	.85**	.63**	-							
2-3	.33**	.49**	.18**	.22**	-						
2-4	.02**	.65**	.45**	.44**	.18**	-					
2-5	.29**	.62**	.44**	.59**	.20**	.23**	-				
2-6	.19**	.57**	.43**	.45**	.20**	.25**	.41**	-			
3	-.41**	-.29**	-.13**	-.29**	-.32**	-.02**	-.28**	-.29**	-		
3-1	-.36**	-.20**	-.02	-.23**	-.26**	-.03**	-.23**	-.20**	.89**	-	
3-2	-.37**	-.32**	-.21**	-.29**	-.31**	.00**	-.27**	-.32**	.88**	.88**	-

주 1. 진로성숙도, 2.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2-1. 학습에 대한 애착, 2-2.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2-3. 도전에 대한 개방성, 2-4. 학습에 대한 호기심, 2-5. 자기이해, 2-6.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3. 학업스트레스, 3-1. 학교성적 스트레스, 3-2. 학교수업 스트레스
주 2. ** $p<.01$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학업스트레스 변인들이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 변인인 진로성숙도가 준거변인인 학업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며($\beta=-.41, p<.001$), 매개변인인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를 통제했을 때 역시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 그 수치는 감소하였다($\beta=-.35, p<.001$). 또한 sobel[40] 검증 결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사이에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Z = -4.90, p<.001$), 이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 진로성숙도와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 매개효과 검증

예언 변인	B	SE	β	t	R ²	F	준거 변인
1	-.51	.05	-.41***	-10.77	.16	116.05**	3
1	-.45	.05	-.35***	-9.10			
2	-.08	.02	-.18***	-4.71	.20	71.22***	3

주. *** $p<.001$

이상과 같이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사이에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 중 학교성적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보듯이 진로성숙도는 학교성적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중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제외하고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제외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예언변인인 진로성숙도는 학교성적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며($\beta = -.36, p < .001$), 매개변인 중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을 제외한 변인 즉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자기이해가 준거변인인 학업성적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또한 예언변인인 진로성숙도는 매개변인인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하위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학업성적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 그 수치는 감소하였다($\beta = -.25, p < .001$). 또한 sobel[40] 검증 결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적 스트레스 사이에서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자기이해 변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Z = -.86, p < .05$), 이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하위변인들이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적 스트레스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진로성숙도와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학교성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 매개효과 검증

예언 변인	B	SE	β	t	R ²	F	준거 변인
1	-.26	.03	-.36***	-9.12	.13	83.45***	7
1	-.18	.03	-.25***	-6.08			
2	.16	.04	.22***	4.45			
3	-.14	.04	-.19**	-3.58	.19	23.12***	7
4	-.15	.04	-.15***	-3.80			
5	-.25	.11	-.11*	-2.24			
6	-.06	.12	-.02	-.49			

주. * $p < .05$, ** $p < .01$
 주 1. 진로성숙도, 2. 학습에 대한 애착, 3.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4. 도전에 대한 개방성, 5. 자기이해, 6.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7. 학교성적 스트레스

다음으로 학업 스트레스 중 학교수업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보듯이 진로성숙도는 학교수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중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제외하고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제외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Stepwise 방식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예언변인인 진로성숙도는 준거 변인인 학교수업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며($\beta = -.37, p < .001$), 매개변인 중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이 학교수업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또한 예언변인인 진로성숙도는 매개변인인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하위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학교수업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나, 그 수치는 감소하였다($\beta = -.25, p < .001$). 또한 sobel[40] 검증 결과 진로성숙도와 학교수업 스트레스 사이에서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변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Z = -.86, p < .05$), 이는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하위변인들이 진로성숙도와 학교수업 스트레스를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4. 진로성숙도와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학교수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 매개효과 검증

예언 변인	B	SE	β	t	R ²	F	준거 변인
1	-.26	.03	-.37***	-9.58	.14	91.78***	7
1	-.18	.03	-.25***	-6.17			
2	-.01	.04	-.01	-.25	.21	25.82***	7
3	-.07	.04	-.09***	-2.01			
4	-.16	.04	-.17***	-4.33			
5	-.15	.11	-.07	-1.46			
6	-.22	.11	-.09*	-2.07			

주. * $p < .05$, ** $p < .01$
 주 1. 진로성숙도, 2. 학습에 대한 애착, 3.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4. 도전에 대한 개방성, 5. 자기이해, 6.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7. 학교수업 스트레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 사이에서 자

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학업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는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이버대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준비도가 높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직업에 대한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34][41].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발달 이론을 다룬 것과는 달리 성인 학습자의 진로성숙도와 같은 진로발달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진로에 대한 성숙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학습준비도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6]를 지지해주며, 진로성숙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적응을 못 할 뿐만 아니라 학업소진이 높다는 선행연구들[3][15][42]과 맥락을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대학과 같은 이러닝 학습 환경의 학업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과정변인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와 같은 개인내적 사전변인과의 관련성을 검증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업적 전문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한 도구로 원격교육을 이해하고 성인학습자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틀[46]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사이버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취업설명회나 박람회 등의 형태가 아니라, 사이버학습 초기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준비하는 능력을 포함시킨 장기적 차원의 진로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를 매개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는 진로성숙도와 학업스트레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점은 진로성숙도가 낮은 사이버대학생들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를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가 진로성숙도라는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러한 특성이 낮은 학습자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사이버대학생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콘텐츠 강화, 상호작용 활성화, 시스템의 편리성 등 수업과 시스템을 주로 강조한 것[47][48]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이버대학 진학자들을 위한 예비대학 과정에서 배영주[49]가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학교 현장에서 습득된 교육관(예: 학습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와 연계된 진로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학습에 대한 호기심, 애착, 책임수용뿐 아니라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자기이해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를 학업성적스트레스와 학교수업스트레스로 구분하고,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도 하위요인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즉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하위요인들을 매개로 학업성적스트레스와 학교수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적스트레스 간에는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자기이해 변인이 그리고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자신의 능력적성 흥미 가치관 신체적 조건 환경적 조건 등 자아의 이해에 관련된 많은 변인들을 고려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이해가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요인이며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8]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요인 중 학습자로서의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은 학업성적스트레스 및 학교 수업스트레스 모두를 매개하였으며, 학업성적스트레스

는 자기이해 변인이 학교수업스트레스에는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이 각각 매개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습스트레스를 성적에서 많이 받느냐 학교수업스트레스에서 많이 경험하느냐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또한 차별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진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이버대학생들은 학생의 역할과 동시에 진로 재탐색자로서 스스로 사전에 준비하는 역할 제정립이 되지 않을 경우 학습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자 특성으로 진로성숙도 변인을 포함시키고 이들의 학습스트레스를 성적과 학교수업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검증해봄으로써 성인기의 학업문제를 진로성숙도와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의 차원에서 모색해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것이다. 둘째,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가 어떻게 매개하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사이버대학생들의 학습스트레스를 완충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직장경력,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이버학습 환경 변인, 가정환경 변인 등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학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성적, 학년, 사이버학습환경, 교수와의 상호작용, 학과만족도 등에 대한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사이버대학생의 학습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내적 특성과 가정환경, 사이버학습 환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인과관계 분석은 추후 연구로 남겨두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cuinfo.net/home/eudc/statistics.sub.action?gnb=55>(2014.9월 검색)
- [2] J. Cronjé, D. E. Adendorff, S. M. Meyer, and van L. Ryneveld, "Surviving the shipwreck: what makes online students stay online and learn?,"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Vol.9, No.4, pp.185-193, 2006.
- [3] 최임숙, "웹기반 블렌디드 러닝에서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교적응행동, 학업소진, 자기결정성, 이러닝 참여도를 중심으로", *열린교육*, 제22권, 제2호, pp.237-260, 2014.
- [4] 김현아, 김현진,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사회*, 제7권, 제3호, pp.51-78, 2011.
- [5] 신호정, 이문희,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학 연구*, 제18권, 제7호, pp.139-161, 2011.
- [6] 최인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7] 선혜연,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 성인학습자 간의 진학 목적 및 진로성숙도 차이", *인간이해*, 제32권, 제2호, pp.165-179, 2011.
- [8] 김선아, 정영선, "사이버대학 성인학생의 특성, 문제해결방식과 다양한 스트레스와의 관계성", *평생학습사회*, 제7권, 제3호, pp.1-23, 2011.
- [9] H. O'Lawrence, "An overview of influence of distance learning on adult learners," *Journal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Vol.1, No.1, pp.416-423, 2007.
- [10] 김혜래, "중학생의 진로결정 실태와 진로 성숙도의 생태 체계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지*, 제13호, pp.51-74, 2007.
- [11] 임현정, 김난옥, "학교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 pp.261-281, 2011.
- [12] 박진형, *원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13] 주영주, 장미진, 이현주, "사이버대학 학생의 중

- 도탈락 경험에 근거한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3호, pp.209-233, 2007.
- [14] 이영, *원격대학 이리닝에서 학습자 특성, 학습전략, 교수 실재감, 학습효과의 관계 규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5] 이상길, “가족체계의 성격과 남고생의 진로태도 성숙”, 진로교육 연구, 제16권, 제2호, pp.123-140, 2003.
- [16] 유귀옥,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17] D. E. Super,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1957.
- [18] 김봉환, 강은희, 강혜영, 공운정, 김영빈, 김희숙, 선혜연, 손은령, 송재홍, 유현실, 이제경, 임은미, 황매향,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6: 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2013.
- [19] D. E. Super,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Vol.57, pp.151-163, 1955.
- [20] J. Crites, *Career Maturity Inventory*, CA: McGraw-Hill, 1973.
- [21] 이가영, 김신영,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권, 제2호, pp.21-45, 2009.
- [22] D. E. Super and E. G. Knasel,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Vol.9, pp.194-201, 1981.
- [23] 한국교육개발원,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 [24] 유은영, 양유정,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의 차이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제11권, 제12호, pp.557-568, 2013.
- [25] 이상희, 오보영, “4개 차원에 따른 진로정체감 단계(status)와 진로태도성숙 및 직업정체감 연구: 수도권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pp.21-42, 2013.
- [26] 이진희, 임성택,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제30권, 제3호, pp.133-146, 2014.
- [27] 이정희, 안영식,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제13권, 제3호, pp.89-116, 2007.
- [28] 정기옥, 최규일,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 몰입 경험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논문학회지*, 제14권, 제6호, pp.281-287, 2014.
- [29] 강유리,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6.
- [30] 성현우, *평생학습자의 교육과정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준비와 진로태도 성숙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1] 김중국, *성인초기의 자기주도 학습준비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2] 한지영, “평생학습 학습 성과 평가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검사도구(SDLRS)의 타당성 연구”, *교육공학연구*, 제11권, 제4호, pp.64-75, 2008.
- [33] 조은순, 남상조, “대학 이리닝에서 학습자의 자발성과 수업기능 활용, 학습 성공에 대한 이해도가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960-975, 2011.
- [34] 최윤정, 김지은,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pp.81-106, 2012.
- [35]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36] L. M.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97.

[37] 전하영, 자기주도 학습과 평생학습참여에 관한 연구-평생학습도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8] 박성희, 아동의 학교 학습스트레스 및 과외 학습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39]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학습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회, 제41권, 제44호, pp.101-123, 2013.

[40]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2.

[41] 최인선, 주은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제20권, 제10호, pp.169-206, 2013.

[42] 김유나,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3] 주영주, 정애경, 한애리, “사이버수업에서 학습스트레스, 성취동기, 학습환경, 학교몰입, 학습지속의향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73-82, 2011.

[44] 박가열, 대학생의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e-고용뉴스, 제23호, pp.1-22, 2008.

[45] 조현숙, 박은영, 최정실, “e-Learning기본간호실습 콘텐츠를 이용한 자기주도 학습이 간호학생의 지식, 자신감,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501-514, 2013.

[46] L. Jodi and R. D. H. Olmsted, “Longitudinal analysis of student performance in an allied health distance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Vol.24, No.2, pp.30-41, 2008.

[47] 주영주, 유나연, 설현남, “사이버대학생의 직장

유무에 따른 고립감, 상호작용, 콘텐츠만족도, 성취도 및 학습지속의향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5, pp.525-540, 2012.

[48] M. Herbert, “High attrition rate in e-learning challenges, predictors, and solutions,” The e Learning Developers Journal, pp.1-7, 2006.

[49] 배영주,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주도 학습 활동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제28권, 제2호, pp.205-223, 2010.

저 자 소 개

김 현 아(Hyun-Ah Kim)

정희원



-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6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새터민 다문화상담, 소외계층 성인교육

이 자 영(Jayoung Lee)

정희원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1년 1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군경상담, 청소년상담, 성인교육